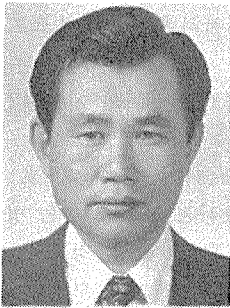


石油情勢의 變化展望과 政策課題



崔 震 碩

〈動力資源部·資源政策室長〉

I. 머리말

石油政策의 목표는 石油의 안정·低價공급에 있다. 國內에 필요한 石油을 全量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事情과 石油가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러한 安定·低價供給目標은 자명한 것이다.

한편, 石油政策展開의 어려움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이 때로는 서로 相衡되는 樣相을 보이는 것인 바, 예를 들어 수급안정을 위하여는 原油의 長期安定도입, 原油導入先의 多邊化, 石油備蓄중대 등의 정책수단이 필요한 한편, 價格안정을 위하여는 저렴한 現物市場활용, 中東등의 低價原油도입, 石油備蓄의 適正化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石油政策의 기본과제는 이러한 정책수단중 相衡되는 부분에 대하여 가능한 한 調和를 이루도록 石油情勢를 감안한 適時, 適正의 정책수단을 운용하는 것이다.

근래, 石油情勢는 82년 이후의 供給余裕발생과 이에 따른 83년 價格下落으로 일부 市場狀況이 호전되고 있으나, 국제석유정세는 불안정요인을 항상 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產油國의 하류부문進出과 國內 油類수요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対応戰略 강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石油政策方向은 여건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여러 政策手段을 再整備·補完하는 한편, 특히 제2차 오일쇼크 이후 급격히 위축된 精油産業을 합리화하여 石油의 安定·低價공급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II. 長期与件变化展望

1. 國際石油情勢 전망

가. 國際石油需給 및 價格전망

- 今世紀末까지 세계의 石油소비는 油價가 안정

될 경우, 점진적으로 0.1~2.2%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先進국의 石油소비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油價가 안정될 경우 1990년대에 다시 증가할 것이나,

—開途국의 石油소비 증가율은 4.0~5%에 달해, 石油의 消費比重도 1980년의 51.9%에서 2000년에는 51.1%~51.4%로 거의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OPEC의 石油소비는 2000년까지 연평균 5~6%의 높은 증가를 보일 것으로 予測되고 있다.

● 한편 石油생산가능량은 현재 15백만B/D 수준의

余裕能力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現確認埋藏量은 920億톤 水準으로서 생산량 (82) 27.5億톤을 기준할 경우 可採年數는 약 33년에 불과하며,

—지역적으로 中東, 北南美, 共產圈에 85% 이상 偏在되어 있고,

—1990년대에는 美国 및 北海産原油의 생산간소와 OPEC中 상대적으로 부족량이 적은 국가들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 따라서 油價가 안정되고, 石油情勢의 急變이 없다 하더라도 90년대부터는 수요가 공급을 超過하여 2000년도에는 9~21백만B/D의 공급부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世界에너지 需給展望〉

(單位: 百萬TOE)

	80	85	90	2000	年平均增加率(%) (81~2000)
需 要	7,003.7	7,559~7,888	8,137~8,777	9,965~11,254	1.8%~2.4%
石 油	2,314.0	2,321~2,385	2,406~2,661	2,799~3,549	0.1 ~2.2
石 炭	989.0	1,058~1,077	1,266~1,325	1,830~2,135	3.1 ~3.9
天 然 氣	859.5	933~ 975	1,103~1,135	1,360~ 1,362	2.3~2.3
原子力, 其他	524.8	726~ 758	906~ 980	1,320~ 1,569	4.7 ~5.6
供 給	7,003.7	7,559~7,888	8,137~8,777	9,965~11,254	1.8%~2.4%
石 油	2,352.1	2,470~2,645	2,365~2,631	2,315~ 2,523	△ 0.1~0.1
石 炭	974.5	1,020~1,042	1,291~1,310	1,810~ 2,175	3.1 ~4.1
天 然 氣	842.3	923~ 953	1,028~1,056	1,250~ 1,357	2.0 ~2.4
原子力, 其他	524.8	726~ 758	906~ 980	1,320~ 1,569	4.7 ~5.6

註: 1) 수요, 공급에는 共產圈을 포함.
 2) 石油가스에는 NGL 및 合成燃料 포함.
 3) 기타에는 新再生에너지 포함.
 (資料) I. E. A. World Energy Outlook, 1982.

● 國際石油가격은 특별한 變化要因이 없는 한, 供給余裕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현재 價格水準을 維持할 것이나 世界石油需給이 均衡을 이루는 87년 이후에는 實質價格기준으로 연평균 3%의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나. 産油國의 下流部門 진출

● 이러한 장기적인 世界石油需給의 逼迫 전망과 함께 石油政策의 새로운 變數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産油國의 하류부문 진출추세이다.

● 産油國은 産油國內의 石油수요 충족 및 原油의

〈世界石油 需給展望〉

(單位: 百萬B/D)

	80	85	90	2000
○需 要	49.5	48-50	50-56	58-74
OECD	38.7	35-36	34-37	33-43
OPEC	2.9	4	5-6	8-9
非OPEC開途國	7.9	9-10	11-13	17-22
○供 給	49.5	48-50	50-52	49-53
OECD	14.8	15	14-13	15-13
OPEC	27.5	23-26	27-29	24-28
非OPEC開途國	5.3	8-9	8-11	9-13
共產圈 및 其他	1.9	2	1-(1)	1-(1)
供給不足	-	-	0-4	9-21

〈原油價格 展望〉

(單位: \$ / 배럴)

	83		84			86	91	2000
	DRI	WEFA	DRI	WEFA	NRI	DRI	DRI	DRI
OPEC 平均公示價 (增加率)	29.25 (-12.5)	29.89 (-12.4)	29.25 (0.0)	28.50 (0.0)	30.35 (1.5)	29.3 (0.0)	34.0 (3.0)	45.7 (3.0)

〈資料〉 DRI 83. 11, WEFA 83. 10, NRI 83. 11

부가가치 향상, 石油去來의 계통적 지배권한 강화를 위하여 大型油槽船의 증강, 精製能力의 확대 및 石油化學産業에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產油國의 戰略은 尙後 國際石油 거래에 있어서 原油-製品生産-輸送-製品販賣의 一括去來方式(Package Deal)이 점차로 일반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OPEC의 製品輸出 可能量〉

(單位: 千B/D)

	1990	1985	1990	
			最低水準	可能水準
總施設能力 (Stream Day)	6,002	8,705	11,440	13,435
製品生産	3,600-3,800	7,404	9,724	11,420
OPEC 需要	2,400	4,067	5,995	5,979
製品輸出可能量	-	-	-	-
-Net	1,200-1,400	3,337	3,745	5,441
-Gross	1,400-1,600	3,510	4,056	5,691
*OPEC 總輸出에 대한 製品輸出比率	6-7%	14%	18-26%	18-26%

〈資料〉 OPEC Down Stream Project, PIW

- 產油國의 精油施設 확장현황을 살펴보면, OPEC의 정제능력은 80년 6,002천B/D에서 85년 8,705천B/D로 증가될 예정(세계전체 精製能力에서 OPEC占有率은 현재의 7%에서 10%로 증가)이며, OPEC의 製品輸出가능량은 80년의 150萬B/D수준에서 85년에는 350만B/D, 90년에는 400-550만B/D로 증가되어 OPEC 總輸出에 대한 제품수출비율이 80년 6~7% 수준에서 85년도에는 14%, 90년도에는 18~26%로 확대될 전망이다.
- 또한 產油國의 石油類수요는 中間溜分 위주의 수요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產油國 수출제품은 B-C油 위주의 重質製品으로 예상된다.

〈OPEC의 油種別 製品輸出展望〉

(單位: 千B/D)

	페르사灣	其他OPEC	計	%
1985				
輕質油	588	156	744	21
中間溜分	672	228	900	26
重質油, 其他	865	1,001	1,866	53
計	2,124	1,385	3,510	100
1990 (Minimum)				
輕質油	842	132	974	24
中間溜分	967	110	1,077	27
重質油, 其他	1,124	881	2,005	49
計	2,933	1,123	4,056	100
1990 (Likely)				
輕質油	1,162	188	1,350	24
中間溜分	1,478	244	1,722	30
重質油, 其他	1,656	963	2,619	46
計	4,296	1,395	5,691	100

〈資料〉 OPEC Down Stream Project, PIW

- 이러한 產油國의 精유시설 확장으로 原油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產油國은 原油수출과 결부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製品導入을 강요, 또는 現物市場등에 제품을 投賣할 素地가 있다.
- OPEC의 이같은 변화는 현재의 消費地精製라는 개념을 退色시키고 세계 석유시장의 구조와 형태에 심각한 변화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2. 国内石油情勢展望

- 제2차 오일쇼크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던 국내석유수요는 82년 하반기 이후의 國際原油수급 및 가격안정에 따라 回復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2~4%의 점진적인 증가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82~86	87~91	91~96	96~2001
— 總에너지수요증가	6.6%	5.7%	5.1%	5.1%
— 石油수요증가	4.0%	3.6%	2.9%	3.2%

- 또한 国内全体 에너지공급의 石油의존도는 1986년에는 50%, 그리고 1990년대에는 45%이하로 계속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지속적인 石油의존도 감축정책의 추진은 精油施設 稼働率低下 상태가 장기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 한편, 장기적인 수요구조의 輕質化趨勢에 따라 油種間 수급불균형이 예상된다. 즉, 中間溜分(輕油, 灯油)의 수요구성비의 급격한 증가와 重質溜分(重油, B-C油)의 구성비의 대폭적인 감소로 86년 55천B/D, 2001년 131천B/D의 需給不均衡이 예상되며, 이러한 需給不均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크래킹施設建設 등 다각적인 대처방법의 강구가 필요하다.

〈輕·重質油 需給展望〉

(單位: 千B/D)

年度		84	86	88	91	96	2001
輕·中質油	需 要	300	363	409	495	597	696
	供 給	(54)	(60)	(63)	(68)	(71)	(71)
	過 不 足	287	308	327	386	493	565
		△ 13	△ 55	△ 82	△ 109	△ 104	△ 131
重 質 油	需 要	241	245	239	230	239	283
	供 給	(46)	(40)	(37)	(32)	(29)	(29)
	過 不 足	254	300	321	339	343	414
		13	55	82	109	104	131
計	需 要	541	608	648	725	836	979
	供 給	(100)	(100)	(100)	(100)	(100)	(100)
		541	608	648	725	836	979

- 註: 1) ()는 構成比: %
 2) 輕質油, 重質油 생산비율 52:48
 3) 極東 建設分(34千B/D) 不包含

Ⅲ. 与件變化에 따른 対応戰略

이러한 장기 国内의 여건변화는 石油政策手段의 再整備가 요구되고 있는 바, 주요한 여건변화와 이에 대한 対応戰略은 대개 아래와 같이 摸索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所要石油의 장기 안정적 확보노력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 国内 所要에너지中 石油비중은 저하되나 절대 소비량은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세계석유수급전망은 매장량의 한계로 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상태 발생이 불가피하다.

	83	86	91	2001
— 石油比重(%)	56.5	50.9	46.4	38.1
— 消費量(千B/D)	522	608	725	979
— 產油國潛在生産力(百萬B/D)	15 (+)	0~△4	△9~△21	

따라서 石油소비절약시책의 적극화와 함께 油田개발의 착실한 추진(2001년까지 自給率 10% 수준 달성)으로 需給安定基盤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 국제석유정세의 불안요인 常存 및 비축수준의 未洽과 中東의존도의 過多는 급격한 석유정세변화에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 비축수준: 62日(日本: 109日, 美国: 91日分)

— 中東의존도: 74%(日本: 70.5%, 美国: 71%)

따라서 適正備蓄石油확보 및 민간비축의 誘引(84년까지 110日分 비축달성: 정부 60日, 민간 50日)과 原油導入先의 다변화 적극추진(中東의존도: 84년 68%, 86년 60%이하 유지)이 시급하며, 비상시 石油수급계획의 平時 완비가 절실하다.

둘째: 國際石油정세변화의 적극활용이 가능토록 石油輸出入 정책의 합리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 국제 石油수급호전으로 상당기간 現物市場價格의 低價유지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국제석유정세와 수급안정수준을 勘案, 現物市場 原油의 적정활용이 가능토록 原油導入政策의 신축적 運用이 필요하다.

- 한편, 장기적으로는 產油國의 하류부문 진출과 開放体制의 확대에 따른 大幅的인 輸入自由化 趨勢로 消費地精製主義의 退色이 예상되므로

— 国内생산과 수입과의 균형을 통한 저가안정공급의 最適化를 도모토록 수출입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 石油業界의 自生力이 배양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세제 : 精製施設의 고도화와 규모의 適正化이다.

- 輕質油와 重質油 사용비율의 변화로 油種間 需給不均衡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重質油分解施設설치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83	86	91	2001
—輕質油(%)	51	60	68	71
—重質油(%)	49	40	32	29

- 정제시설의 가동률저하와 老朽化에 대비하여 해외부문의 수요창출과 老朽施設의 他用途 전환등 정제시설의 구조개선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내책 : 경영축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油價管理制度의 개선이다.

-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한 油價管理가 가능토록 국내의 여건을 감안, 점진적인 유가제도 개선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 油種間 가격구조 歪曲에 따른 資源配分の 非効率性を 제거하기 위하여는 국제가격구조로의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IV. 精油産業構造 개편방안

- 이러한 対応戰略을 전개함에 있어서 커다란 隘路事項은 국내정유산업의 脆弱性이다.
- 精油産業은 가장 중요한 基礎에너지 공급업체일 뿐만 아니라,
 - 국민경제 基幹産業
 - 국가안보 전략산업으로
 公益性이 강조되는 한편, 進出口성이 불가피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 1, 2차 오일쇼크 발생에 따른 경영상태의 꺾임과 장기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정유산업의 위축전망, 정유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일반인식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따라서 장기적인 석유의 저가·안정공급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는 정유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自生力배양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1. 精油産業의 당면과제

가. 가동률 하락

- 第2次 石油危機 이후, 가동률 하락 현상의 지

속에 따라 精油産業의 안정성장기반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83년 原油價하락 및 경기회복으로 일부수요가 증가되었으나, 장기적인 石油의존도 감축정책 추진에 따라 가동률의 대폭증가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 石油소비둔화 : 경기침체 및 石油의존도 감축 정책 추진 (石油수요 : 80년 △ 1%, 81년 △ 0.7%, 82년 △ 0.6%, 83년 5.7%)

— 정제능력증가 : 78년 580천B/D → 81년 790천 B/D (雙龍 60천B/D, 湖油150천B/D 완공)

〈稼動率 推移〉

	78	79	80	81	82	83
稼動率(%)	79	86	77	67	60	63

※ 適正稼動率 : 75—80% 수준

- 이에 따라 生産原價中 固定費 부담이 증가되었고, 가동 정상화를 위한 정유사간의 市場過當競爭에 따라, 수급질서문란과 유통단계의 過多투자가 惹起된 바 있다.

나. 경영여건의 불안요인

- (1) 국제원유시장의 불안정
- 國際原油價 급등현상은 精油産業경영상태와 직결되어 금융비용급증에 따른 재무구조의 악화 초래.

〈原油導入 유전스 推移〉

	78	79	80	81	82	83(11月)
유전스殘額(億원)	2,330	5,094	14,377	17,000	16,246	14,400
(平均使用期日)	(67)	(93)	(158)	(128)	(128)	(132)
유전스剩餘(億원)	107	164	1,029	2,300	1,510	1,368

(2) 換率의 불안정

- 換率상승은 國際原油價 이상으로 原油구입비의 직접적인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유전스 換差損의 급증으로 精油社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精油産業경영의 불안요인으로 작용(換率 1% 상승시, 油價 1.3% 인상요인 발생)

- 原油代의 직접 증가요인 : 0.92% (原油代가 국내 油価에 차지하는 비중 : 9.2%)
- 原油代 지분을 위한 外貨債務 (22億달러)의 간접 증가요인 : 0.35%

(유전스 換差損 推移)

	78	79	80	81	82	83
年平均換率	485	485	622.6	682.5	724.4	771.9
(增加率)	(0)	(0)	(36.6%)	(6.1%)	(6.6%)	(6.2%)
換差損(億圓)	-	-	2,905	1,200	1,281	1,205

(3) 政府部門費用的 硬直性

- 石油類稅의 증압은 精油産業 뿐만 아니라, 수요 자에게도 에너지費用 加重要인으로 작용

다. 經營基盤의 脆弱

- 第2次 石油危機時 가격안정 重視의 石油政策 展開와 (79-82년 收益性: 稅後 49億圓)
- 가동률 下落, 경영불안요인 內在 등으로 정유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유산업의 재무구조가 脆弱하여져 再投資基盤 악화,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라. 政府依存의 深化

- 정유산업의 정부 依存體質 深化는 자주적인 경영능력 및 환경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2. 精油産業의 長期与件变化전망

이러한 정유산업의 당면문제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수급상황의 변화, 투자소요의 증대, 경제사회 흐름의 변화등으로 향후 정유산업의 전망은 결코 밝다고 할 수 없다.

가. 需給狀況의 변화

(1) 産油國의 下流部門진출

- 사우디등 OPEC 産油國의 輸出專用 정유공장건설추진에 따라,
 - 향후 産油國은 原油수출과 결부하여 제품구입을 강요하거나 또는, 現物市場에 투매할 우

려가 있으며,

- 또한 産油國수요는 輕質溜分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장차 輸出製品은 국내에서도 과잉이 예상되는 B-C油등 重質製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現物市場 기능의 확대

- 또한 現物市場의 功能이 단기적인 수급조정 및 差益重視측면에서, 産油國 및 輸出專用 정유공장의 投売창구로 登場케 됨에 따라서 국내에 現物市場의 投売物量 搬入壓力이 고조될 것이다.

(3) 石油依存度 감축의 추진과 油種間 需給不均 衡 발생

- 國內 에너지 政策의 기본방향이 石油依存度 감축에 중점을 두어 전개됨에 따라 精油産業의 위축은 불가피한 것이며,

- 수요증가율(81-2201) : 總에너지 5.3%, 石油 3.4%

- 石油依存度 : 81년 58% → 86년 51% → 91년 46% → 2001년 38%

- 石油소비구조의 輕質油 증가, 重質油 감소 추세에 비하여,

- 原油공급의 重質化

- 産油國의 重質製品수출 등으로 油種間 수급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나. 投資所要의 증대

- 精油産業의 경영구조악화와 시장위축 전망에도 불구하고, 油種間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重質油 분해시설 건설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신규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1) 重質油 分解施設건설

- 86년 34千B/D 1基, 88년 35千B/D 1基 필요(2001년까지 35千B/D 규모 4基 필요)

- 소요자금 : 極東石油 34千B/D基準 1,715億圓

(2) 低硫黃燃料油 공급확대

- 86년까지 輕油 100%, B-C油 71% 低硫黃燃料油 공급

- 重質油분해시설, 低硫黃原油사용을 우선하되, 不足分은 脫黃施設건설 公需 필요

- 소요자금 : 30千B/D기준 1,000億圓

(3) 민간비축의 확대

- 86년까지 60日分 民間貯藏施設 확보 : 不足分

11.5百萬B/D

—소요자금: 950億원

(4) 에너지節約施設の 보완

—油類수송의 에너지소비절약, 수송수요의 隘路 요인 타개, 비상시 首都圈에의 안정적 油類공급을 위하여 송유관 건설추진 필요

—麗水—서울, 蔚山—大田間 742km 건설

—소요자금: 2,538億원

(5) 重質原油 정제시설 건설

—原油의 重質化에 따라 전용처리시설 필요, 소규모 精製施設の 適正 경제규모화 필요

—소요자금: 極東 60千B/D 기준 2,405億원

다. 經濟社会 흐름의 변화

(1) 消費地精製主義의 퇴색

● 消費地精製主義는 국내 부가가치의 殘留, 석유수급측면의 안정등에 기여하여 왔으나,

—原油價 폭등에 따른 상대적인 下流部門의 이익 축소

—產油國의 下流部門 진출

—現物市場의 기능확대에 따라 石油市場이 Seller's market 전환時, 產油國政策 여하에 따라 生産地精製主義에 비하여 경제적 우월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 더우기, 대내적으로 開放經濟体制의 확대에 맞추어 石油輸出入의 자유화와 油價自律化는 불가피한 추세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消費地精製主義도 退色케 될 것이다.

(2) 産業支援制度的 변화

● 또한 産業支援制度에는 關聯 特別法上的 지원, 稅制面의 지원, 金融面의 지원이 있으나, 精油産業의 경우 關稅減免惠沢의 축소, 國民投資基金등 재정금을 축소등 지원축소 경향이 있다.

3. 構造改編推進方案

가. 精製施設の 효율성 提高

(1) 遊休施設の 효율성 提高

● 質加工輸出, 美軍納, 國際방카링, 內國籍船 방카링 적극추진으로 對外部門에서의 石油수요의 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 잉여시설에 대한 처리는 시설의 殘余能力을 감안, 他用途로의 전환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常壓蒸溜塔(油公 55千B/D, 湖油 100千B/D)

→Visbreaking 시설(Mild cracking의 일종)

—揮發油製造시설(稼動率 30—40%)→BTX 제조시설

(2) 投資計劃의 효율성 提高

● 장기 國際石油去來의 추세를 감안, 국내 생산과 수입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계획은 수립하되,

—精油施設: 80년대 極東 增設分(60千B/D)만 추진

90년대 產油國의 製品輸出戰略을 감안, 적정 계획 수립

—크래킹施設: 80년대 Hydrocracking 35千B/D 규모 2基건설 추진

90년대 국내 油類수요의 변화 추이와 國際石油製品市場의 활용가능성을 감안, 適正計劃 수립

● 投資計劃은 시설의 重複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투자의 효율성을 極大化하여야 할 것이다.

나. 經營合理化의 적극적 추진

(1) 換리스크 対策마련

● 圓貨金融化 또는 先物換去來의 방법이 있으나, 各精油社의 金融機關 貸付限度, 外換收支 측면에서 限界가 予想되므로 各精油社가 慎重檢討 대처토록 하고,

● 換리스크에 대비한 유전스 사용규모의 적정화가 誘導되어야 할 것이다.

—施設投資 소요자금: 자기자본 또는 長期借入金

—運營資金: 가능한 한 축소

(2) 原價節減의 적극추진

● 工程의 熱效率향상과 精油社間 제품교환에 의한 輸送費節減을 확대하는 한편, 關聯技術의 개발축적으로 원가절감에도 새로운 노력을 傾注해야 할 것이다.

다. 事業의 多樣化 추진

(1) 垂直的 參與의 확대

- 既存事業의 안정성장 基盤을 構築하는 한편,
 - 上流部門: 國內의 油田開發 참여 및 關聯技術 축적, 輸送事業 참여
 - 下流部門: 石油化學 및 潤滑油事業등 계열화 추진
- (2) 綜合에너지産業으로의 개편
- 既存에너지 事業運營 經驗 및 영향력 활용,
 - 精油産業의 他에너지 關聯分野 진출로 綜合에

너지 기업으로의 성장전략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V. 맺는말

이러한 精油産業의 체질강화는 油價管理制度개선과 需給安定基盤鞏固에 기여하여 石油 低價 安定供給의 政策目標실현의 근간이 될 것이며 또한 장기적인 國內의 与件변화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하는 基本요건이 될 것이다. *

國際原油가격전망

油價, 10年후엔 2배로 뚝다
셀·코노코등 향후 석유정제 예측

최 근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제원유가격이 앞으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오를 수도 있으며, 또 20년후까지 내다볼 경우, 6배 이상 급등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왔다.

셀社は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OPEC의 기준유종으로 국제원유가격의 기준이 되는 아라비안 라이트의 경우 오는 86년까지는 현재의 배럴당 29달러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오는 93년에는 2배 가까운 52달러로, 그리고 20년 뒤인 2005년까지는 현재 가격의 6배가 넘는 배럴당 1백92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셀社の 예측은 인플레이션상승률이 85년 5%, 86년 6%, 87~93년 6.5%, 그리고 그 이후에는 6%가 된다는 가정아래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석유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간은 油價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상승률 증가속도에 맞추어 오를 것이므로 이 예측이 적어도 오는 93년까지는 현실적으로 수긍할만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석유회사들의 공동출자로 운영되고 있는 「石油産業 연구기금」의 존 리히트블로전무는 『오는 93년 이후의 油價는 추측하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며, 또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코노코社は 자유세계의 OPEC產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美國의 에너지수급전망은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이며, 油價는 오는 90년대에 가서 인플레이션상승률을 앞지르게 될 것』이라고 연례보고서에서 예측했다.

코노코社の 전망은 油價가 80년대 후반, 즉 오는 85년부터 89년까지는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또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으며, 90년대에 들어서면 非OPEC產油國의 석유공급이 고갈되면서 세계석유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油價상승률이 인플레이션상승률을 어느 정도 앞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코노코社は 또 2000년대에는 美國의 해외석유 의존도가 현재의 26%에서 45%까지 높아질 것이며, OPEC의 자유세계 석유수요에 대한 공급률도 현재의 41%에서 54%까지 증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분석가들은 수년전 세계적 경기침체현상과 석유공급과잉현상이 일어나기전까지는 油價가 오는 85년대에 가서 배럴당 55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음을 지적했다.